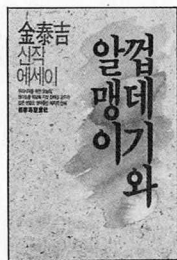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목록

出協선정... 88년 1~2월분

겹데기와 알맹이

金泰吉 著



우리시대 삶의 문제를 깊게 성찰해 온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태길씨의 신작 에세이집.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라는 존재의 의미, 길고 험한 지성의 길, 허식과 진실 등을 차분하게 살핀 70여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묶었다.

哲學과 現實社 / A5신 / 298면 / 3000원

러시아의 음악가들

서우석 著



1860년대 러시아의 억압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작곡가들의 사랑과 우정이 펼쳐지는 음악사의 뒷이야기들. 러시아 음악의 아버지 글링카, 민족주의적 오페라작곡가 다르고미즈키, 기벽의 소유자였던 발라키레프, 물이해와 냉대 속에서 외롭게 죽어야만 했던 무소르그스키 등 러시아 천재작곡가들의 음악세계와 사생활을 다채롭게 그렸다.

청한 / A5 / 272면 / 3500원

철학산책

모티머 애들러 著 / 김한경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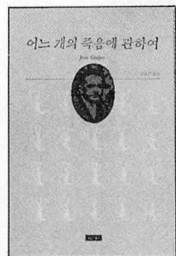


철학이라고 하면 우선 딱딱하고 난해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저자는 이 책에서 철학이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철학,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 85가지를 선별해 문답형식으로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사색하고 전개한 통찰과 지혜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교양서. 자유문고 / A5신 / 262면 / 3000원

어느 개의 죽음에 관하여

장 그르니에 著 / 김정란 역



까귀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그르니에의 대표적 에세이.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떠돌이 개와의 사랑을 통해 인간의 참모습을 관조하는 한편, 사랑하는 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생명·정열·신 등의 문제를 탐구한 아름다운 작품이다.

창하 / A5신 / 154면 / 2500원

산골소녀 옥진이 詩集

김옥진 著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곡에서 추락하여 전신마비로 8년째 엎드려 지내고 있는 김옥진양의 시와 수기. 육체적인 고통을 불굴의 의지로 견디어 낸 한 소녀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60여편의 시와 병상수기, 그리고 선배시인들이 주는 3편의 격려시 등을 수록했다.

사사연 / A5신 / 126면 / 2000원

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尹絲淳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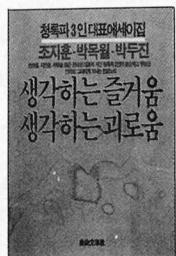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유학을 주도한 학자들의 구체적 인 사상과 생애를 통해, 당시의 유학과 그 흐름을 알기 쉽게 해설한 책. 세계와 사회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바르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유학의 핵심사상을 상세히 살피고 있다.

열음사 / A5 / 184면 / 2300원

생각하는 즐거움 생각하는 괴로움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공저



청순하고 투명한 언어로 인생과 자연, 사랑을 노래한 청록파 3인의 대표에세이집. 시선집의 경우는 몇 차례 간행된 바 있었지만, 세 사람의 에세

이선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단유감」 「새벽의 명상」 「勇氣論」 등의 글들을 통해 세 시인들의 정감과 기지를 한껏 느껴볼 수 있다.

自由文學社 / A5신 / 320면 / 3000원

백두산 민담(1·2)

가린 미하일롭스키 著 / 김녹양 역



19세기 러시아의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미하일롭스키의 「조선·만주·요동반도 기행」(1899) 가운데서 제 6장에 수록된 '조선의 민담'편을 옮겼다.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유역을 배경으로 북부지방에 살던 우리 민족의 기질과 풍속, 당시의 세태 등을 생생히 살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창작사 / B6변형 / 각권216면 / 각권1500원

흰 제비의 여름

李祭夏 著



「狂畫師」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의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친숙한 이제하씨의 단편소설집. 「유원지의 겨울」 「비」 「불멸의 청자」 「군화」

등 저자가 소년기에 겪은 6·25의 정신적 상처,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적 생각들, 가난의 체험 등을 소재로 한 50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인동 / A5신 / 286면 / 2800원

그림책 쓰는 법

엘렌 E.M. 로버트 著 / 金正 역



아동도서만을 전문적으로 편집해온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림책을 쓸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답하고 있다. 이야기의 구성 및 집필에서부터 인쇄에 이르기까지 그림책 만들기의 모든 것을 친절히 안내한다.

普成社 / A5신 / 216면 / 5000원

우리 詩의 理解

신경림 著



「농무」의 작가 신경림씨가 평범하고 성실한 독자의 입장에서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시를 읽고 난 뒤의 느낌을 말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시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부에서는 시란 무엇이며 시정신이란 어떤 것인가 등을 서술했고, 2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들을 한편한편 해설했다.

한길사 / A5변형 / 238면 / 2200원

목마른 계절

박완서 著



작가의 6·25 체험을 소재로 하여, 1950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이야기를 월별로 묶은 장편소설. 6월에서 9월까지 사이의 S대 문리대 민청의 활동상황을 둘러싼 젊은이들의 모습과 1월과 2월의 공동화된 서울의 모습,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도시의 긴장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열린책들 / A5신 / 304면 / 3200원

山臺탈놀이

徐淵昊 著



楊州별산대놀이와 松坡산대놀이의 현장 전승적 연구. 경기도 지방에 전승되는 산대탈놀이는, 지배층에 대한 저항이나 점증되어 가던 당시의 경제의식 및 현실주의적 인생관을 반영하고 있는 귀중한 민속예술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는 각 놀이의 성립, 환경, 놀이패와 놀이꾼, 놀이방식,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열화당 / A5신 / 126면 / 3500원